

# ‘미사일 슈팅’ 명성... 2025 K리그1 전북 코치로 합류

정조국은 2000년 U-16 청소년대표를 거쳐 2002년 대신고 3학년 때에 U-20 청소년 대표로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놀라운 활약으로 우승에 공헌했다. 이를 눈여겨본 ‘월드컵 4강 신화’ 거스 히딩크 감독 밑에서 훈련생으로 경험을 쌓았다. 2003년 FC서울의 전신인 안양LG에서 프로로 데뷔해 미사일처럼 날카로운 골을 쏘 ‘패트리엇 미사일’에서 따온 ‘패트리어트’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신인상을 받아 재능을 뽐냈다. 2004년 팀이 연고지를 서울로 옮긴 뒤에도 간판 골잡이로 활약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유망주로 떠올랐다.



유럽에서 진가를 알아봐 2010시즌 FC서울에서 13골로 K리그 우승에 기여한 뒤 자유계약(FA) 선수로 풀려 2011년 프랑스 리그앙 무대를 밟았다. AJ오세르를 통해 유럽 진출 꿈을 이룬 그는 6개월간 AS낭시로 임대됐다가 복귀했지만 오세르가 다음 시즌 2부로 강등되면서 새 팀을 찾아 나섰다. 2013년까지였던 계약을 중단하고 구단과 합의를 통해 친정팀 FC서울로 돌아왔다.

2016시즌 FC서울을 떠나 광주FC에 등지를 틀고 31경기 출전해 20득점을 올리며 생애 첫 득점왕에 올랐으며 베스트11 공격수 부문 최우수선수상(MVP)을 휩쓸며 제2의 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강원FC에서 세 시즌 동안 활약한 후 2016년 광주FC의 사령탑이었던 남기일 감독의 부름을 받고 2020년 제주유나이티드 FC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2 무대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우승과 승격에 힘을 보탰다.

2020년까지 K리그에서 총 17시즌을 뛰며 개인 통산 392경기 121골 29도움을 기록한 정조국은 2020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축구 선수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역할이 컸다. 은퇴식에서 정조국은 “가족은 내가 경기장에서 뛰는 이유이기도 했다”며 “내 에너지이자 동기 부여가 된 것도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는 나를 보았다. 몸은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지쳐있었다. 이런 스트레스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이제 좀 벗어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면서 “아내(김성은 씨)가 가장 많이 힘들어 했다. 울기도 많이 울더라. 그러나 결국 다음 스텝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줬다”며 은퇴 결심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은퇴 후 남 감독의 배려 속에 현역 은퇴 직후 곧바로 제주유나이티드 FC 공격 코치로 합류하는 행운을 맞았다. 2023년 수석코치로 보직을 옮겨 남 감독을 보좌했고 시즌 중 남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하자 감독 대행에 맡아 K리그1 잔류를 이끌었다.

2024년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원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12월 전북현대모터스 지휘봉을 잡은 거스 포엿 감독의 코칭스태프로 합류해 K리그1 2025시즌을 함께할 예정이다. 구단 관계자는 “포엿 감독이 국내 무대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조국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조국 전북현대모터스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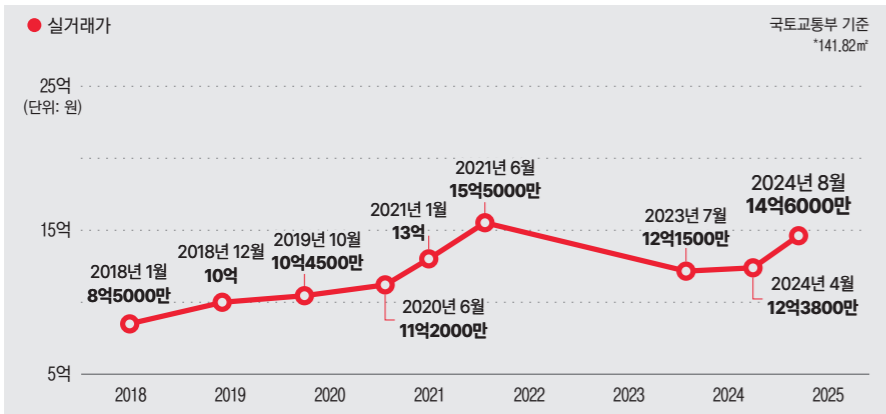
연립뉴스

공급면적 216.64㎡(약 65.53평) 호실이 지난해 7월 25억 원에 매매돼 정조국 소유 호실은 28억6000만 원가량에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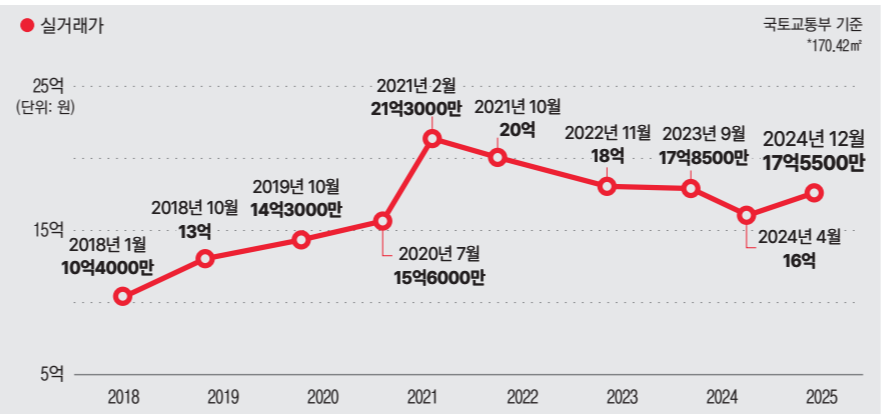
전용면적 198~227㎡(18가구·1개동·지하 2층~최고 6층으로 구성된 레미테지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옥수역이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며 한남동과 가까워 유명 카페나 맛집 접근도 수월하다. 또한 동호대교·한남대교·강변북로로 차량 접근이 우수해 강남과 강북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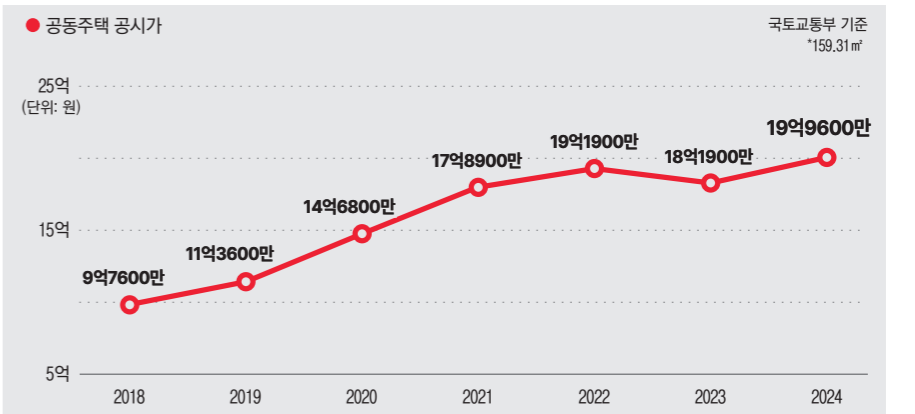
### 극동그린



### 옥수극동



### 한남하이츠



### 유승신 전 헬릭스미스 최고기술경영자

유승신 전 헬릭스미스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화이트헤드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 교수였던 김선영 전 대표가 설립한 바이로메디가 패시픽(현 헬릭스미스)의 1호 직원으로 영입됐다. 이후 헬릭스미스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일본 다카라바이오에서 부장으로 3년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2020년 1월 헬릭스미스 상무에서 사장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4월 대표이사에서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이끌



었다. 기업의 최대 강점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한 그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임상 및 연구에 몰두하고자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헬릭스미스는 2005년 기술 특허로 코스닥에 상장했고 연구개발에도 성과를 내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중 선두그룹에 있는 바이오벤처로 평가된다.



### 이나리 헨카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나리 카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동아일보에서 2002년 9월부터 1년간 전문 인터뷰어로서 월간지 신동아에 심층 인터뷰 ‘이나리 기자의 사람 속으로’를 연재했다. 2006년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겨 주말섹션 ‘위크엔’ 팀장, 경제 부문 정보기술(IT) 미디어팀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컨설팅·취업 및 창업 정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헤이조이스를 설립했다. 2022년 칼리자 헤이조이스 운영사인 플래너리를 인수한 이후에도 헤이조이스 대표



를 겸직하며 경영을 이어갔으나 2023년 말 칼리자 플래너리를 100% 흡수합병하면서 자연스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24년 2월 카이오 그룹이 브랜드 및 메시지 전략 강화를 위해 CA 협의체 산하에 신설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이진민 현자연인 대표이사

이진민 자연인 대표이사는 아시아 최초로 런던국제광고제 금사자상을 수상한 실력과 카피라이터로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제일기획에 입사해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름을 날렸다. 금강기획에서도 일한 그는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나는 나 톰보이’ 등 눈길을 끄는 유명 카피를 만들었다. 14년간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1999년 대학 동아리 친구인 유영진 전 사장과 여성 전문 포털 ‘마이클럽’을 설립했다. 화제를 모은 마이클럽의 ‘선영아 사랑해’라는 티저광고(상품명을 숨겨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법)는 이 대표가 만들었다. 이후 돈을 좇기보다 가



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독일 녹색당 출신의 환경주의자들이 만든 브랜드 로고나코리아의 대표를 맡았다. 로고나코리아는 독일계 천연·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로 로고나 본사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활용해 2009년 순수 국내 천연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를 선보였다.

